

2004 교보생명 사업 보고서

#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협 3층  
☎ 062-514-2470 <http://gwangju.kfem.or.kr>

#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도심 속의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환경교육, 체험·현장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어 여러 기관과 학교, 시민단체에서 자연체험활동과 환경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흥미위주의 교육과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깊이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환경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미술을 매개로 표현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경사랑에 대한 실천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자연이 사람에게, 사람이 자연에게 서로 주고받는 공생의 관계로 내 자신이 먼저 숲과 자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접하며 여러 활동을 통해 자연사랑의 마음과 눈을 갖기 위한 계기를 마련 하고자 했다.

## 1.사업목적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단순한 탐방이나, 일회성 미술활동이 아니라 일년 동안 4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활동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들의 정서를 자연체험 활동과 모듬활동, 캠프 그리고 협동화 그리기 등 공동체활동을 통해 나만이 아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삶을 옛봄으로 인해 친환경적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매개(미술활동, 자연체험)를 이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술, 자연생태, 지역문화, 지역환경문제 등 환경을 주제로 한 통합교육을 시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연결되어있는 우리의 생활문화에 대한 접근, 통합교육에 대한 사례를 만든다.

자연체험과 그림을 통한 자연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성을 높이고, 자연관찰 프로그램과 미술교육을 연계한다.

## 2.사업개요

- 사업명 :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 그림과 함께 하는 환경현장교육-
- 장 소 : 광주천, 백양사 등 광주 전남지역
- 기 간 : 2004년 3월~12월
- 진행교사 :박태규/ 화가(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김희련/ 화가(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김영선/ 생태해설가

·서미선/ 숲해설가

·김춘희/ 광주환경연합 간사

▪ 대 상 : 광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30명

▪ 사업 진행 방법 : 어린이의 순수한 감수성과 눈높이에서 자연을 배우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현장환경교육이며,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의 전문화가와 함께 어린이의 순수한 감수성을 살리고 자연을 친구로 대하는 품성을 익힌다. 교육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실내미술활동으로 다양한 표현방법과 초보적인 단계의 미술교육이 1단계이고, 현장체험활동으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계절별 주제를 선정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그리기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2단계이다. 그리고 3단계는 협동작업으로 공동의 생활보다 개별화 되어가는 아이들의 정서를 모듈별 토론과 작품만들기와 그리기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4단계는 1년의 활동을 정리하는 전시회와 간담회로 마무리한다.

### 3.사업내용

#### ■ 활동개요

<b>세 부 활동명</b>	오리엔테이션 및 그림도구와 친구되기				
<b>교육일시</b>	2004. 3. 21(일)	<b>교육장소</b>	북동신협 4층 강당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박태규,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p>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 / 물 한 방울 흠 한 줌회원 /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회원/광주 전남 숲해설가 협회 /자운영 미술학교 기획 운영</p> <p>-2004 제 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참여 [광주천의 숨소리]순수와 참여의 미학전 (광주시립미술관)</p> <p>-2002 개인전 "짧은작가지원 프로그램 박태규전' ( 광주롯데화랑 )</p> <p>제4회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3 집행유예 ( 광주5.18자유공원 )</p>			
<b>교육내용</b>	<p>○오리엔테이션</p> <p>-부모님과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p> <p>○그림도구와 친해지기</p> <p>-자기모습 그리기, 친구모습 그리기</p> <p>-다양한 표정 그리기(화난얼굴, 웃는얼굴, 찡그린 얼굴, 무표정등)</p> <p>○숙제: 부모님 모습 그리기</p>				
<b>준비물</b>	스케치북(5절지), 2B 4B연필, 지우개, 거울			<b>참고 자료</b>	
<b>평가</b>	<p>자기얼굴 그리기는 평소에 자주 보았던 자신의 얼굴이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그리다 보면 얼굴에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특징을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선생님은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과 성격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림도구와 친해지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었다</p>				

#### ◎ 오리엔테이션 및 그림도구와 친구되기

-아이들 그림은 사실이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재미있다-

본격적인 현장교육으로 들어가기전 부모님,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선생님, 활동가가 함께 모여 서로 인사하는 시간과 함께 1년의 활동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활동가는 활동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는 동안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자기모습 그리기시간을 가졌다.

### 자기모습 그리기, 친구모습 그리기



실내에서 나의모습과 친구 모습을 그리는 것은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표현하는 기초적인 그리기 활동이다.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면 종종 자연 풍경만을 그리게 된다. 아름다운 풍경은 잘 그리는데 사람 그리기를 어려워 한다. 고학년이 되면 더욱 그렇다. 자연속에 사람도 조화롭게 함께 하는 모습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 얼굴 그리기는 평소에 자주 보았던 자신의

**자기모습 그리기** 얼 굴이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그려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정겹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얼굴에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특징을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선생님은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과 성격까지도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림 도구와 친해지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모습을 그리고 난후 아이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소개하고 힘들었던점과 재미있었던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모습 그려오기 숙제를 내주었다. 일로 바쁜신 부모님과 컴퓨터와 게임기 그리고 학원에 바쁜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부모님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과 함께 부모님과 친밀감을 높일수도 있고,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후 숙제검사때 아이들은 엄마가 이랬어요, 아빠가 저랬어요라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느라 바빴다.



멋있는 두현이



예쁘지요-오진하



엄마 모습



아빠얼굴

<b>세 부 활동명</b>	광주천이야기				
<b>교육일시</b>	2004년 3월 28일	<b>교육장소</b>	광주천상류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천 둘러보기</li> <li>-자연형하천으로 변화하고 있는 광주천을 둘러보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만나보았다.</li> <li>○ 제 이름 좀 알려주세요(스무고개)</li> <li>-식물카드,동물카드 이용</li> <li>○ 맛있는 점심시간</li> <li>-일회용 용기가 아니고,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부모님께서 맛있게 싸주신 도시락</li> <li>○ 줄넘기</li> <li>-우리 함께 발 맞추어 하나 둘 셋</li> <li>○ 그림 그리기</li> <li>○ 느낌나누기</li> </ul>				
<b>준비물</b>	아이들=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둥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도시락 선생님=줄넘기 줄, 식물과 동물 놀이카드			<b>참고 자료</b>	
<b>평가</b>	많이 기다린 야외에서의 첫활동인 만큼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 했고, 광주천의 역할과 소중함 그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광주천 이야기 (광주천의 미래 그림으로 표현하기)

지금 광주천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하천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구불구불하던 물길이 직선으로 바뀌고 하천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호안과 보를 콘크리트로 덮어 버렸다. 이후 광주천은 물풀과 물고기가 떠나고 사람들조차 찾지 않는 하천으로 변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천에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못 생명들이 다시 찾아드는 곳으로 되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자연형하천 공사구간과 복개된 구간을 비교해 보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광주천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기도 하고, 식물과 물속의 생명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이후 광주천을 생각할 때 이곳에 생명이 깃들어 사는 소중한 곳으로 인식하고 도심하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 **광주천 둘러보기**

“물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듯이 광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한 광주천, 사람들에게 아주 가깝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천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들이 찾은 광주천은 물 만 흘러 가는데 아니라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흘러 갑니다.” 라는 김희련 선생님의 광주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광주천을 둘러 보기로 하였다.

오늘 들은 내용으로 게임을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설명을 듣는 내내 아이들은 수첩에 줄기가 서로 부딪칠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 개불알풀, 우리나라 토종 민달래, 붕어, 피라미등 광주천 친구들 이름을 열심히 적어 나갔다. 이렇게 아이들은 광주천에서 소중한 생명을 만날 수 있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아이들의 입에선 탄성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 무엇이예요? 저것 무엇이예요? 라고 끈임없이 묻기도 하였고, 놀란 토끼눈을 하고서 “선생님! 광주천에도 물고기가 있어요.” 라고 매우 신기해 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생활폐수에 오염된 광주천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더러운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보급자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며 그렇게 하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찾아 올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요, 물을 아껴써요,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요, 라고 제법 어른스러운 답을 하였다.

### **아직은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 **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스무고개)**

사전에 답사를 통해 광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을 카드로 만들어 두었다. 광주천을 둘러보기 하는 동안 선생님은 그 친구들의 이름을 은근 슬쩍 강조해 주면서 진행한다. 동물팀과 식물팀으로 나누어 자기 팀 안에서 한사람에게 한번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질문을 하기전 친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라고 말한 후 질문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주어졌다.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먹서먹한 아이들이 자기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친해질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쑥스러워 하면서도 팀의 우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물어가며 게임에 임했다. 그리고 최종 이름을 알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남는 팀이 지게 된다. 이번에는 동물팀이 우승! 다시 팀을 나누어 한번 더 게임을 진행했다.

### **인스턴트 식품이 들어 있지 않은 맛있는 도시락**

중간 중간 지금 몇시예요?라고 수없이 물어보며 아이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 점심시간이다. 맛도 맛있지만 친구와 나누어 먹으라고 넉넉하게 보내주신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 있는 도시락이었다.

여기에도 규칙이 하나 적용된다.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운 일 이시지만,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을 가져오거나 싸 오면 안된다. 이러한 규칙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규칙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의 도시락은 김밥, 밥 그리고 고구마, 삶은 계란, 과일등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 있는 것들이었다.

### 줄넘기 놀이

10명이 한조가 되어 팀을 이루고, 먼저 팀별 연습시간을 준다. 단체줄넘기 놀이는 누구 한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팀에서 줄넘기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는 개인 지도를 받아가며 열심히 참여하였다. 이때 선생님은 혹여 잘하지 못한 친구를 비난하거나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준다는 규칙과 함께 잘 관찰하도록 했다. 10명이 함께 발을 맞추며 하나 둘 셋을 외치며 땀 흘리는 동안 서로 친해지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더욱 친해진 모습들이다.

### 그림그리고 느낌나누기

광주천을 둘러보고, 뛰어놀면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광주천 친구들과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난후 자기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느낌을 이야기 하였다.



뭣 그리냐?



신나는 줄넘기



광주천의 여러 친구들



징검다리

### 다녀온 후 느낌 글

안녕하세요.

저는 하슬이라고 합니다.

광주천에서 저는 선생님 친구들과...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함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의 식물들의 특징 또는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 보았어요

그런데,  
자연 재해 현상때문인가 아니고  
우리들,,, 사람들 때문에 광주천물이 더러워 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찡 하네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음에는  
광주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식물 동물 들이 잘 자라나고  
공기도 좋고 맑은 공기도 쉴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b>세 부 활동명</b>	광주에서 가장 높은 무등산				
<b>교육일시</b>	2004년 4월 18일(일)	<b>교육장소</b>	무등산 원효계곡	<b>교육인원</b>	20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소리 듣기</li> <li>-숲에 접어들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li> <li>○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li> <li>-내 나무와 인사하기. 껌안아 보기, 얼굴 부비기, 돌위에 누워 하늘보기, 소리듣기</li> <li>○ 계곡물에 사는 친구들은 누구?</li> <li>-계곡물에 사는 친구들 관찰하기-</li> <li>○ 솔방울 넣기</li> <li>○ 그림그리기</li> <li>○ 느낌 나누기</li> </ul>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둥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도시락			<b>참고 자료</b>	
<b>평가</b>	이번 무등산은 기존 계획에 없었던 것인 만큼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광주엔 가장 낮은 곳 광주천과 가장 높은곳 무등산이 광주를 지켜주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곳으로 인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돌위에 누워 시원한 돌의 느낌과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도 함께 깨달을 수 있었다.				

### ◎ 무등산 원효계곡을 찾아서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이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숲 속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무등산에 접어들어 우린 가장 먼저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어떤소리가 들리는 지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소리요~, 바람소리요~, 계곡에서 물흐르는 소리요~, 낙엽 밟는소리요~등 아이들의 입에선 다양한 소리들이 나왔다. 그중 한 친구는 가을에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들 웃었다. 그리고 숲속 나무의 나이와 이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기~

내나무를 찾아 꼭 껴안아 보기도 하고, 얼굴을 맞대보기도 하고, 탁본도 떠 보았다. 또한 계곡의 넓은 돌 위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하늘을 보고,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후 그 느낌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우린 계곡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여기 좀 봐’ 라고 한 친구가 외치면 우르르...이곳 저곳 신기하고 이름모를 계곡의 수생물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개구리 알과 막 부화하기 시작한 올챙이, 물속에서 나무와 돌등을 이용해 나무막대처럼 교묘하게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강도래, 소금쟁이, 피리, 이름모를 곤충 등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보여준 곤충에 대한 호기심은 대단했다. 이곳 저곳 둘러보면서 스스로 사진도 찍고 이후 그림속에도 등장했다. 그리고 봄옷으로 한껏 치장한 무등산도 아이들 그림속에 담겨 졌다.

### 솔방울 넣기

점심을 먹고 그림도 그리다 아이들이 쓰고 온 모자를 이용해 팀을 나누어 솔방울 모자에 넣기 게임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한쪽 눈을 감고 던지기도 하고, 곡선을 그리며 던져야 된다는 등 이런 저런 방법으로 많이 넣기 위해 애를 썼다. 처음엔 조금 먼 거리에서 시작해 조금씩 좁혀 가면서 진행했다.

오전의 화창한 날씨가 오후가 되면서 꾸물꾸물거리더니 비가 오는 바람에 다리밑에서 남은 일정을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저 새로운 체험으로 즐거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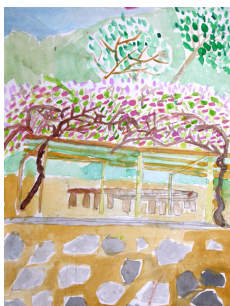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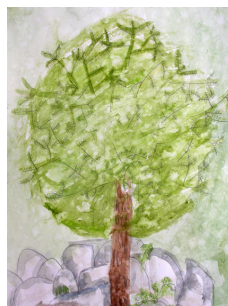
뭔가 발견!



이름모를 곤충



등나무 꽃



가문비 나무



벚꽃

## 다녀온 후 느낌글

나뭇 잎에 부딪쳐 튀기는 빗방울 소리가  
투 툑 투 툑 후 두둑 투 툑 아직도 들립니다.

계곡물에 부딪쳐 사라지는 빗방울 소리가  
쏟아 풍 풍 포 풍 쏟아 아직도 들립니다.

애써서 그린 그림위에 빗방울 소리가  
툑 투 툑 후두둑 추 축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나무들 처럼 비를 흥뻑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김희련-

<b>세 부 활동명</b>	숲체험 [숲 속 주인은 누구 일까요?]				
<b>교육일시</b>	2004.5.30(일)	<b>교육장소</b>	장성 백양사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박태규, 서미선		<b>연락처</b>	
	<b>약력</b>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물 한 방울 흠 한 줌/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광주 /전남 숲해설가 협회 /자운영 미술학교 기획 운영			
<b>교육내용</b>	-숲속 자연생태계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명의 소중함도 체험하고, 더불어 우리의 삶속의 숲의 역할을 알아봄 ○ 숲 속에서는 누가 누가 살고 있나요 -숲해설 듣기 -녹색담이란? 썩은 나무속의 곤충이야기 ○ 자연놀이 -나방과 박쥐 놀이- ○ 아름다운 숲 그리기 ○ 느낌 나누기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둥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도시락, 눈가리개 손수건			<b>참고 자료</b>	
<b>평가</b>	숲에서의 하루! 잘 우거진 백양사에서의 숲은 그냥 가만히 서있어도 좋은 그런 곳인 것 같다. 푸르게 우거진 숲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고, 직접 느낄수 있었던 기회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숲체험 [숲 속 주인은 누구 일까요?]

자연을그리는아이들이 5월 30일 일요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장성 백양사 계곡과 숲길에서 숲 체험을 하며 자연과 친구되고 자연에서 배우기 위해 숲 속 친구들을 만나보고 재미있는 자연놀이를 하며 그림을 그렸다. 적당히 내려준 초여름비는 숲 속에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행운이었다.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백암산의 정상은 신비롭기 까지 하였다. 숲 속에서 느껴지는 상큼한 기운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볍고 여유롭게 하였다. 아이들은 갈참나무와 단풍나무가 도열하듯 서있는 숲길을 거닐며 잘 설명이 된 공원의 표지판과 숲 해설 선생님의 안내로 자연속의 친구들을 찾아 다녔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눈길을 잡는 것은 엄청 큰 갈참나무와 비자나무 였다. 연못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아주 날쎈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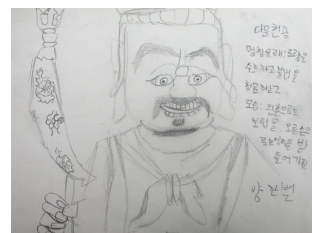
란 물충새를 멀리서나마 만나보고 도토리를 좋아하는 다람쥐, 배가부른 비단잉어와 같겨니도 만났다. 지팡이가 변한 이팝나무, 아이들의 손가락을 닮은 단풍나무...

칠백살이나 되는 할아버지 갈참나무는 많은 아이들에게 또다른 숲 속 주인을 만나는 즐거움을 주었다. 숲해설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700년동안이나 이곳에서 갈참나무가 살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다. 아이들은 땅에 뿌리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영양분이 많아서...등 이런저런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단다. 갈참나무가 이곳에서 700년이나 살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자식들이 커 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아이들은 이해하겠다는 듯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해지기 까지 했다.

이곳은 죽은나무를 그대로 두어 숲에서 태어나 숲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할 수도 있었고, 맨발로 땅을 밟아보고 계곡물에 발씻고, 감꽃을 주워 먹어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쥐~~, 나방~~ ( 짹짹 ) 아이들의 웃음소리,**

밤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먹이를 찾는 박쥐와 나방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박쥐가 된 친구는 손수건을 이용해 눈을 가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방이 되어 나방~하고 손뼉을 쳐준다. 그러면 박쥐는 소리를 듣고 나방을 잡는다. 서로 박쥐가 되려고 아이들은 일부러 잡혀주기도 하면서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였다. 이후 조금은 쑥스럽지만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그림자랑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였다.



<b>세 부 활동명</b>	동물원(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b>교육일시</b>	2004.6.27(일)	<b>교육장소</b>	우치공원내 동물원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박태규		<b>연락처</b>	
	<b>약력</b>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물 한 방울 흠 한 줌/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광주 /전남 숲해설가 협회 /자운영 미술학교 기획 운영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원 둘러보기</li> <li>-동물들의 친구 이광용 선생님과 함께-</li> <li>○ 동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기</li> <li>○ 동물들의 입장되보기</li> <li>-우리체험-</li> <li>○ 이어달리기</li> <li>-호랑이팀과 돌고래팀으로 나누어 경기-</li> </ul>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등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도시락, 손수건			<b>참고 자료</b>	
<b>평가</b>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이광용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이었지만 우리에게 간혀사는 동물들의 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다.				

◎ 동물들 만나기

동물원에서는 호랑이,불곰,재규어,흑표범,큰빨소,원숭이,공작, 홍부리황새, 아프리카거위 등. 여러동물들을 만나보고 각각의 개성과 동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자연속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친구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동물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동물원의 좁고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의 미소는 언제나 무표정하고, 그 용맹하고 사나운 성격은 변해서 아무런 의욕도 할일도 없어 보였다. 아이들 눈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거나 보다. 이후 아이들 그림속의 동물의 모습과 이야기에 또 잘 나타나 있다.

## 동물 입장 되어보기 -우리체험



### 우리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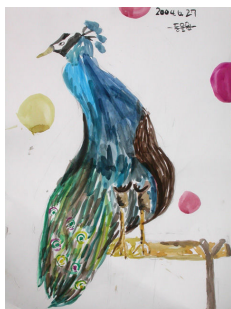
아이들이 동물원에는 자주 와보지만, 무심히 동물을 바라보다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하고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로 하였다.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이광용 선생님의 도움으로 빈우리에 들어가 동물이 되어 보기로 했다. 처음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을 말하며 그저 재미있는 놀이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처음엔 우리안에 10여명이 함께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들은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못먹는 풀도 던져주는 행동을 하면서 동물이 된 친구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다. 우리에 들어가 얼마동안 여러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인지 장난도 하고 웃고 놀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해지고 빨리 내 보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동안 이광용 선생님께서 동물원에서는 얼마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다. 많은 동물들이 사육사가 주는 먹이나 사료를 받아먹고 잘 지내지만 동물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해로운 풀이나 과자를 먹게 하거나 심하게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동물들이 먹이인줄 알고 비닐을 먹고 배설이 되지 않아 때론 죽는 일도 있다고 하시며 얼마전 기린이 죽었다는 말씀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조용해 졌다. 사람들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친구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 이어달리기

아이들 제안으로 동물원 한쪽 주변을 마음껏 달려보는 이어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 바다의 멧쟁이 돌고래모듬과 숲 속 멧쟁이 호랑이 모듬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게임이어서 인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동물친구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졌다. 나중에 더 넓고 자유로운 장소에서 한번 더 이어달리기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그린 동물친구들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였다.



홍부리 황새



멋진 공작새



슬픈 사바나원숭이



흰뺨검둥오리와사향오리



## 다녀온 후 느낌글

동물원에 갔다.

오랜만에 나들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물원에 하림이 아빠께서 근무 하셔서 우린 동물 우리에도 들어가 보았다.

원래 난 동물에게 먹이도 마음대로 주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안에 들어가니 그 심정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이 먹지 못할것을 던지니까 짜증도 났다.

내가 짜증이나는데 동물들도 짜증이 나니 말이다.

역시 이러면 안되겠다.

어떤 동물은 우리가 던진 비닐을 먹고 죽기도 했다고 한다.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은하수-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에서

동물원에 다녀 왔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여러가지 동물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괴상한 울음 소리를 내는 공작새

또 얼굴이 빨간 원숭이

곰등등 여러 가지 동물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께서 그러셨어요...

이번에 기린이 죽었다구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는 비닐 돌등 먹지 못하는 것을  
주어서 기린이 죽었다구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서 죽는데

기린처럼 억울하게 죽지는 않 거든요...

그리고 우리속에 들어가 다른친구들은

우리들에게 먹이 를 주고 놀리고 하여 동물들의 마음을  
알게되었어요...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저는 그 동물친구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가족끼리 놀러가면은

아!!! 이런 동물들이 있구나~!!



하고 만 배우고 오는데

이런 경험을 통하여 직접 동물들의 마음을 알게되어  
더 기억이 생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아는 우리와 같은 움직이는 생명체의  
마음이 어떤지 같은 생명이 있으면서도 동물들은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하고 생각도 해 보아 느낀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느라 다리도 아팠지만  
즐거운 현장체험학습이었던것 같습니다 -천사-

<b>세 부 활동명</b>	송계마을 지준명 선생님을 찾아서...(1박 2일 캠프)				
<b>교육일시</b>	7월24일(토)~25일(일)	<b>교육장소</b>	무등산 아래 송계마을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p>24일</p> <p>오후3시30분 광주교육대학출발</p> <p>4시30분 송계마을 도착 (도착하기전 마을입구에서 전체 마을 바라보기,시무지기폭포알기)</p> <p>5시 집정리와 물놀이(무등산 시무지기폭포아래 계곡에서)</p> <p>7시 저녁식사(모듬별 식사준비, 상차림, 자연식 식단표)</p> <p>8시 모듬별 활동 장기자랑, 담력테스트</p> <p>옥수수, 감자구워먹기, 내가 생각하는 환경은?</p> <p>11시 꿈나라</p> <p>25일</p> <p>6시 일어나기, 주변청소</p> <p>7시 동네 둘러보기, 송계마을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을지도) 2절 판넬준비3개</p> <p>8시 아침식사(모듬별 식사준비)</p> <p>9시 송계마을 들여다보기, 모듬별 마을지도 그리기 (골목,돌담,집,마을,들꽃과 들풀,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p> <p>12시 점심식사(모듬별 식사준비)</p> <p>오후1시 송계마을 그리기(싸인펜,색연필)</p> <p>2시 물놀이</p> <p>3시 마을 어른신들께 그림자랑하기 느낌나누기.</p> <p>4시 주변청소, 지준명선생님 인사, 광주로</p> <p>5시 교대도착</p>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둥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b>참고자료</b>	여벌의 옷,
<b>평가</b>	공동의 생활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1박 2일의 모듬 생활을 통해 작은 일에서부터 힘을 합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밥을 지을 때도, 설거지와 마을지도를 그릴 때도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마을 어른신들과 자연스럽게 함 팀이 되어 그린 마을 지도 그리기는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 송계마을에서 1박 2일 캠프

송계마을 지준명선생님댁인 황토집에서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이 여름캠프를 하였다. 송계마을을 뒤에는 무등산과 마을 앞에는 야트막한 산들이 빙 둘러져 있는 작고 아담한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우린 먼저 마을에 들어서기전에 시무지기 폭포를 보며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시무지기 폭포수가 흐르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시작으로 우리의 캠프 일정이 시작되었다.

#### 모듬별 식사준비

모듬별로 돌아가며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는 식사는 너무나도 맛있었다. 집에서 자주 해보는 일이 아니라서 서툴고 힘이 들었겠지만 너는 감자 썰고, 너는 상추 씻고, 너는 밥 하고 등 다들 역할을 나누어 모듬전체가 힘을 모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도 예쁘고 대견해 보였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모듬별로 돌아가며 아이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자기의 역할에 매우 충실하게 임했다. 식사를 준비하는 모듬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다른 모듬은 마을 정자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자연의 주인인 여러 동식물을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였다. (뱀, 어치, 버섯, 청설모, 소나무...)

"아이들은 한 문제만 더요...두 문제만 더요" 하고 열심히 놀이에 참여 하였다.

#### 장기자랑

저녁을 먹고 난 이후 장기자랑 시간은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콩쥐와 팥쥐를 즉흥연극으로, 동전 마술, 몸으로 글씨 만들기,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노래 부르기로 아이들의 표정은 밤하늘에 별들만큼이나 밝은 모습이었다.

####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지도 그리기

25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청소하고 마을을 한바퀴 돌아보며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을을 지키듯 감싸안은 뒷산과 앞산, 시원한 계곡의 물줄기는 어디로, 우리가 다니는 길은 어떻게, 옆 마을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마을회관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 쉬는 장소 정자와 당산나무는, 다리는, 이집은 화순택, 이장님택... 고추밭, 참깨밭, 대나무숲은...마을을 아이들이 조사하고 동네 어르신에게 여쭙보고....먼저 모듬별로 마을을 조사하고 난 이후 마을 정자에서 마을지도 그리기를 하였다. "너는 산을 그려 나는 정자와 당산나무를 그려" 라고 역할을 나누어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아이들은 지도를 그리다 모르면 마을 앞 정자에 용기종기 모여 놓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이집은 누구 집이에요? 옛날에 이 돌무덤 속에 진짜 사람 묻었어요라고 동네 어르신의 농담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은 저수지의 위치며 산이며 열심히 물어가며 지도를 완성했다. 지도를 그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한 모듬이 되었고,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덩달아 신이나 지도그리기에 동참하셨다.

#### 느낌나누기

마을어르신들을 모시고 열심히 그린 마을지도를 소개하고 1박2일동안 송계마을에서 지내면서 느낀점을 발표하였다.



저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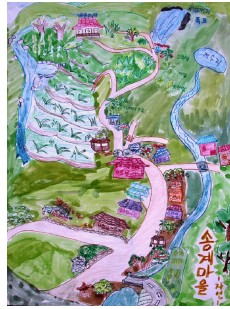
계곡에서 물놀이



아이들의 젖은 옷



모듬별 마을지도 발표



### 다녀온 후 느낌 글

난 자연을그리는아이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갖다오기전까지는 환경단체 캠프가 재미 없을거란 말밖에 생각나지않았다....

그런데 난 이모의 권유로 여름캠프를 갔다. 송계마을에 사시는 지준명선생님덕(일명털보아저씨덕)에 갔다. 무등산 시무지기 폭포도 보고 마을에 도착한뒤 정자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니 생각이 뒤바뀌었다,

지준명선생님덕에는 선생님이 없으셨다. 그래서 짐을풀어 놓은뒤 선생님들이 계곡을 간다기에 신나서 옷도 갈아입고 수건을 챙겨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지준명선생님은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곳 박선생님덕에 계셨다....

우리는 깊은산속에 산삼을 찾는기분이었다 우리는 계곡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계곡에 도착한 뒤 계곡물에 몸을 담근 순간 “헉” 악 너무 차가워란 말을 하고 싶었다.

난 그렇게 추울줄 몰랐다. 계곡에서 잠수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몸은 추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물놀이를 한 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집으로 도착한 아이들은 옷을 갈아입고 밥먹을 준비를 하였다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끝이라는 말이들렸다. 툭툭랄라 신이 났다. 밥은 카레였다. 너무 맛있었고 밥 먹은 뒤 장기자랑 시간에 우리조는 신식 공쥐팔쥐전을 연극으로 보여 주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말씀을 하셨다. 아주 재미 있다고,,,,,,

그리고 우리모두 당력테스트를 한다고 했다 나는 가슴도 떨리기도 하였고 재미있기도 하였다 우리차례가 되었다 난 마음을 편히하고 올라갔다.....

근데 갑자기“ 내 다리 내놔” 라는 말이 들렸다. 난 바로 뒤로 쓰러졌다 다시 올라가보니 갑자기 선생님이 뛰어오고 다시 내려가니 “내가 선생님이로 보이니”라는 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서 뛰어갔다.....

당력테스트가 끝난뒤 잠을 잤다 내가 잔곳은 텐트... 흑흑 할수없이 텐트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잘때 추워서 죽는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난뒤 밥을 먹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동네 이장할아버지가 개를 나무에 묶어 죽이는 것을 보았다. 애들은 그걸보고 막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죽었다. 난너무 화가나서 왜죽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어른들의실체가 되는말을 듣고 말았다. 마을 이장님이 하는말이 개가 오늘 죽는날이라고 하였다. 바로 복날이었다.

선생님들이 마을지도를 그리자고 해서 조금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조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 다른조보다 못그린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 마을지도를 다그린 후 선생님들이 물놀이를 또 가자고 해서 계곡에 갔다. 계곡에서는 애들과 함께 물고기도 잡하니 너무 신이났다. 나도 많이 잡았다... 바로5마리

계곡에갔다온뒤 집에 갈준비를 하였다 이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있는데 간식으로 삶은계란을 먹고 잠을 잤다 -서태성-

<b>세 부 활동명</b>	도시공원을 찾아서 -광주공원				
<b>교육일시</b>	8월 29일(일)	<b>교육장소</b>	광주공원일대	<b>교육인원</b>	25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김영선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김영선-환경운동가, 생태해설가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천과 광주공원의 만남</li> <li>○ 공원둘러보기 (김영선 선생님과 함께)</li> <li>-사직단과 서오층탑의 유래</li> <li>○ 공원에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을까?</li> <li>-서어나무, 갈참나무</li> <li>○ 광주 동서남북 그리기</li> <li>-광주가 한눈에 보이는 팔각정에 올라 모듬별로 동서남북 그리기</li> </ul>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등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b>참고자료</b>		
<b>평가</b>	도심 하면 아이들은 빌딩, 자동차, 도로등 회색빛을 연상한다. 그리고 자연하면 시골하고 대답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심도 얼마든지 푸르름이 우거진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도시공원을 찾아서

삼행시 짓기 (광·주·천) , 편지쓰기(광주천아~)

광주공원에 가기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천을 먼저 둘러 보기로 했다.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상처가 난 광주천을 둘러보고 삼행시 짓기와 편지 쓰기를 했다.

광주천의  
주인은  
천에 사는 물고기와 돌이다 -장원선-

광주천에서 사람들이  
주요하는 것은  
천에 쓰레기 버리는것?  
이러면 안되지 -안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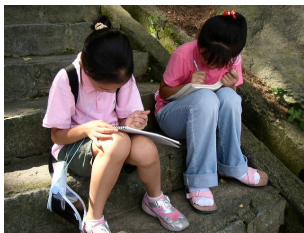
광주천어  
태풍메기 때문에 힘들었지,  
힘내! -최진서-

광주천에게,...  
광주천아 너는 사람들이 너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너는 사람이 얕밟겠지  
언젠가 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언젠가 사람들이 너를 다시 살려줄거야

#### 광주공원 둘러보기와 광주의 동서남북 그리기

여름에는 도시의 온도를 조정해주며 도시의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공기를 맑게 해주고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어지는 도심녹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1960년대 말 헐렸다 1994년 복원되어 나라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을 둘러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마련해 놓은 주변 지압봉 길을 걸어 보기도 하고, 공원을 이루고 있는 여러나무들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광주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팔각정에 올라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광주의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는 도심 숲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 동서남북팀으로 나누고 그 팀안에서 다시 구역을 나누어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후 팀별로 나와 그림을 맞추어 보고 발표하였다.



광주천 삼행시 짓기



사직단 주변 발 지압



하늘을 맞춰봐. 동쪽팀

<b>세 부 활동명</b>	농사체험,농부님과 대화				
<b>교육일시</b>	10월 3일(일)	<b>교육장소</b>	함평 정권남 농부님댁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p>-농촌현장체험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는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농기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부님과 대화</li> <li>-풀과 함께 춤추는 벼, 고인돌 탐방</li> <li>○ 농기구의 이름과 쓰임새 알기</li> <li>○ 농사체험</li> <li>-콩깍지 밟기 고추따기 등</li> </ul>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등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b>참고자료</b>	
<b>평가</b>	<p>농촌 살리기 운동과 함께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물아저씨로부터 농촌의 모습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의 점심을 손수 준비해주시면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야채와 채소로 쌈을 해 먹고, 직접 담근 매실차,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잡곡밥, 우리밀 전등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은 내년에도 와도 되요 하고 물을 정도였다.</p>				

◎ 농사체험, 농부님과 대화

자연에 감사하며 즐겁게 농사를 지으시는 정권남 농부님댁에 다녀왔다. 농부님은 농사 지으면서 가장 소중한 물, 물 처럼 살고 싶다하여 물 아저씨라고 불러 달라 하였고, 부침개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풀 아줌마와 한별(중2), 한길(초6)이가 함께 살고 있다. 자연에 감사하며 즐겁게 농사를 지으시는 정권남 농부님댁에서는 자연에 감사하는 과 농부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여유로운 시골농가를 주제로 누우런 황금들판과 마당에 널려 있는 빨간고추, 호박, 가지, 농기계, 감나무, 소나무, 들판등을 그렸다. 마당옆으로 돌아가면 청동기시대 유물인 고인들이 있어 농부님의 설명도 듣고 마당앞에 콩을 떨어내기 위해 콩깍지도 밟았다. 처음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콩을 먹을수 있어요?라고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아저씨께 물었다. 또한 풀도 다 자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며 지금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벼를 소개해 주셨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세금은 내요? 농기구는 무슨돈으로 사요?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였다. 아저씨는 하늘이 주신 만큼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며 크게 웃으신다.

물아저씨는 한끼 밥상을 소중히 생각하며 재미있게 일을 하신다. 그러한 농부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즐거운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옆 마을 허브학교에 있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둘러보고 운동장에서 재미있는 오징어놀이를 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시골마을 학교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 농부님의 친구

지게, 호미, 낫, 솥돌, 풍곡기...

호박, 봉선화, 피마자, 고추, 가지, 며느리배꼽...

감나무, 밤나무, 소나무, 개구리, 방아깨비, 참새, 지렁이...집 주변에는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농부님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 물 아저씨는 이런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이 주신 넉넉함에 항상 고마워 하신다고 하셨다. 자연에 감사하며 사는 농부님의 삶은 항상 즐겁고 밥을 만들고 일하는 모습 속에서 건강은 덤으로 찾아온다고 하셨다. 자아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루 체험하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도 넘 뜻이로 기꺼이 감사하게 생각해 주셨다. 농부님의 마음을 다 느끼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여유로운 시골마을을 체험하고 자연에 감사함을 배우고 그림으로 표현 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찾아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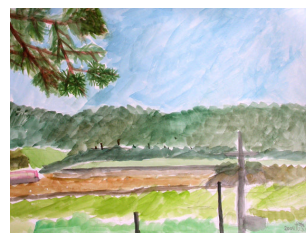
콩깍지 밟기



단체사진



지게와 낫, 잠자리



소나무와 가을 들녘



호박꽃과 잎, 개여뀌



<b>세 부 활동명</b>	선조들의 이야기				
<b>교육일시</b>	11월 7일(일)	<b>교육장소</b>	담양 가사문화권-식영정	<b>교육인원</b>	25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사셨던 선조들의 정자문화와 학문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알아봄. ○ 식영정 이야기 ○ 자연물로 꾸미기 ○ 자연물로 그림 그리기				
<b>준비물</b>	야외이젤, 화판과 스케치북(5절지, 10분 스케치용 16절지), 수채화 물감, 파렛트, 둥근 붓(16호와 10호), 물통, 2B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싸인 펜, 파스텔			<b>참고자료</b>	
<b>평가</b>	옛날 선조들의 정자문화와 지혜에 대해 보고 들으며 매우 흥미로워 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물길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연못과 정자, 서고로 쓰여지는 곳은 바람이 잘 통하여 습기가 들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지혜등을 배울 수 있었다.				

### ◎ 선조들의 이야기 -식영정을 찾아서

노란색 은행나무와 빨간색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 가을날 자연을그리는아이들이 옛 선조들의 숨결이 숨쉬는 가사문화의 산실인 식영정엘 다녀왔다.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곳 식영정은 광주 주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탁트인 선인들의 정자문화와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주변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보통 여행객들은 잠시 스쳐지나가는 곳이지만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방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계곡의 물길을 따라 걸어보기도 하고 한문이 절반인 송강 선생님의 시비를 합창으로 읽어보기도 하였다.(한글만)

### 자연물로 그림그리기

이후 식영정의 가을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자연물 꾸미기를 하였다. 먼저 팀을 나누어 낙엽,

열매, 풀등 자연물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무엇을 그릴것인지 의논하여 결정하고 땅에 떨어진 자연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바다속 풍경



꽃수염난 사람



꽃밭

### 자연물로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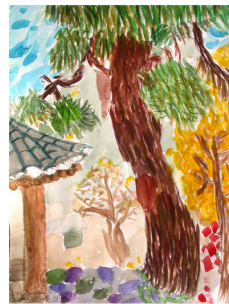
팀중 한명을 선발해 한 친구를 자연물로 꾸미기를 하였다. 이때도 자연물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진 자연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은행나무



인디안 추장



식영정과 소나무



부용당과 은행나무

### 다녀온 후 느낌 글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에서 오늘은 식영정을 갔다.  
 그런데 아침부터 은행을 밟아버려서 신발에서 똥냄새가 났다.  
 하지만 기분좋게 그림은 열심히 그렸다.  
 그리고 오늘이 야외수업이 마지막이라서 다들 열심히 그렸다.  
 나는 부용당을 한번에 볼수있게 크게 그렸다.  
 모두다 잘 그렸다고 하였다.  
 중간에 밥을 먹은 다음에 조를 나누어서 게임을 하였다.  
 어떤 게임 이냐면 하드보드지에다가 자연물로 꾸미기를 하였다.  
 우리조는 단풍나무 조였고, 자연물로 바닷속을 꾸렸다.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함께 하여주셨다.  
 그다음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하였다.  
 이번에는 자연물로 사람을 꾸미는 것이었다.  
 나는 언니들과,하슬이와 같이 태성이 오빠를 원주민처럼 꾸렸다.  
 다른팀은 운영이를 나무처럼 운영이를 붙여서 운영나무를 만들었다.  
 두 팀다 만만치 않았지만 모두 기억에 남는 일 일것이다.  
 그 다음엔 각조 팀장이나와서 발표도하고,자기그림 설명도 하였다.  
 아주 재미있는 가을 여행이었다. -초록나라-

<b>세 부 활동명</b>	환경조각보 만들기 -합동작품				
<b>교육일시</b>	11월 28일(일)	<b>교육장소</b>	광주환경연합 사무실	<b>교육인원</b>	26명
<b>강사</b>	<b>성명</b>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별 주제 정하기</li> <li>-주제를 정해 역할 분담</li> <li>○바느질 하기</li> <li>○발표하고 느낌 나누기</li> </ul>				
<b>준비물</b>	바늘과 색색이 실. 조각천, 가위, 도시락			<b>참고 자료</b>	
<b>평가</b>	<p>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토론하여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잡아 바느질을 하였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한해를 평가도 해보고 또 아이들의 잡다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선생님과의 다정한 대화의 시간도 되었다. 바느질도 가르쳐주고 아이와 오붓한 대화의 시간도 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p>				

◎ 조각보 환경이야기

자연을그리는아이들 3단계 수업내용은 협동그림 그리기이다. 올해 협동그림은 "천을 이용한 조각보 꾸미기"그림이다. 일년동안 자연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하여 표현한다. 먼저 모듈별 주제를 토론하여 전쟁, 환경으로 정했고, 우리주변에서 느끼는 전쟁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평소에 바늘과 실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조각보를 가위로 잘라 바느질을 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손가락을 활용하여 무엇을 만들어 보고 꾸미는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인내심과 집중력을 갖는데도 좋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바느질을 매우 재미있어 하였고 특히 주제를 정하는 과정의 토론은 전쟁을 하는 어른들을 비판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대안까지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바느질도 꼼꼼히 잘하였다.

전쟁팀은 "위험한 전쟁은 싫어요"라는 주제로 눈물, 빨간철모, 비둘기, 손바닥, 주먹, 미사일, 탱크, 하트, 한송이꽃,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엄마! 어디에 계세요, P-45A USA 미사일, 빨간불꽃, 죽음...등 전쟁에 대한 아이들의 표현은 다양하였다. 환경팀은 처음에 조금 어려웠다. 지구 환경부터 시작하여 집앞 쓰레기 문제, 나무, 바다속 환경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엇으로 할것인가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다. 토론 끝에 은나 친구가 제안하는 "I LOVE 인스턴트"로 아이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난 정말 인스턴트가 좋아요," 배추, 토마토, 감자, 마늘, 오이, 가지, 고추, 당근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야채, 채소, 과일을 한쪽에 배치하고 간편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회용 식품과 지금 아주 많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인 피자, 고기, 컵라면, 초코렛, 사탕, 닭튀김...등을 반대쪽에다 연결하고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아이들 작품은 먹거리 중요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와 내용을 정한 아이들은 서툰 바느질 솜씨지만 한땀 한땀 정성 들여 바느질 하고 팀별로 연결 하나의 작품을 완성 하였다.

공동의 생활보다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만 자연에서 배우고 느끼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그림으로 표현한 "천을 이용한 조각보 꾸미기"는 힘은 들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주제 정하기



밀그림 그리기



바느질

<b>세 부 활동명</b>	전시회-1년의 활동 정리				
<b>교육일시</b>	12월 9일(목)~12월15일(수)	<b>교육장소</b>	북구 문화의 집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박태규, 김희련		<b>연락처</b>	
	<b>약력</b>	김희련 미술학교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활동/ 치맛바람 회원/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초등학교 특기적성 미술교사/자운영 미술학교 기획운영			
<b>교육내용</b>	-1년의 활동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함 ○ 아이들과 함께 전시회 준비 ○ 전시회(부모님과 친구들 참여) -1년의 활동 영상보기 -지도 선생님과 인사 -아이들의 느낌, 부모님들의 느낌 듣기 -푸른길 헌수기금 전달식				
<b>준비물</b>	없음		<b>참고 자료</b>		
<b>평가</b>	12월 작은전시회는 아이들 함께 준비하고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를 했다.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이 일년 동안 활동하였던 내용을 정리하고 그동안 그렸던 그림을 모아서 마음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1년의 활동을 그림과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 작은 전시회

북구 문화의 집에서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작은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전시된 그림에는 아이들이 1년 동안 산과 들을 다니면서 나무와 대화도 하고 동물과 곤충과 친구가 되어 자연 안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아이들 마음에 새겨진 자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시장에는 총 80여점의 그림과 그동안 활동한 내용이 담긴 활동영상이 함께 상영되고 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자연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오픈식에서는 그동안 배운 자연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광주의 폐선부지 푸른길에서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이 그림 그리며 뛰어 놀 수 있도록, 푸르른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달라고 그동안 한푼 두푼 모은 돼지 저금통장을 헌수기금으로 내놓아 어른들을 숙연케 했다. 오픈식이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은 매우 진지한 자세로



부모님께 자기의 그림을 소개하기도 했다. 1년동안 많이 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전시회 준비



전시회 오픈하는 날



직접그린 동화책 전시



전시 관람온 아이들



광주의 동서남북 그림 전시

#### 4.평가

▪그림을 매개로 하는 환경교육이지만 드로잉의 기술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의 빛깔을 느끼고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자연의 심미안을 기르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계절별로 다양한 주제를 정하고 나뭇잎이 피는 모습,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숲과 자연 환경 속에서 생명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자연의 질서를 배우며 자연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소통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박태규, 김희련님은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활동 등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작품활동을 오랫동안 전개해온 전문화가일 뿐만 아니라 숲해설, 하천해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연해설 전문가로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었고, 효율적이고 알찬 교육이 진행 될 수 있었다.

▪ 1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의 특징과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개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 의사전달이 용이하였다. 또한 1년 동안 아이들의 의식 변화와 표현 능력의 향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림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담겨진 자연의 모습과 아이들이 느끼고 마음에 새긴 자연을 입을 수 있었다.

▪ 동물원 우리체험과 마을지도 그리기, 환경조각보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새로우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되었으며 교육이후 타 프로그램에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 또한 1년동안 함께 지도해주신 선생님 중 박태규 선생님께서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에 「광주천+사람」이라는 주제로 출품한 작품제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그림지도에 있어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소수가 효율적이라 고려된다.

▪ 마지막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전시회는 그림전시회와 1년의 활동 영상을 상영,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예, 푸름이 환경지킴이 등)

▪ 전시회기간동안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아 1회의 전시회 계획을 변경 1월 3일~7일까지 광주서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한 번 더 전시회를 갖을 예정이다.

▪ 2005년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2006년 2007년...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을 모집, 교육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